**문화간 의사소통**

**사생활을 공유하는 한국 VS 공유하지 않는 미국**

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면 먼저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로 가족 관계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 다.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는 몇몇 미국 국적의 한국어학습자와 점심식사를 하고 차 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. 한국어교사는 이 미국국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난 학기에도 가르친 경험이 있어 다른 학습자보다 친근감을 느껴서 한국인에게 해 왔던 것처럼 가족관계, 직업, 성장배경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조금 전까지 친근하게 대화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면 서 사생활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. 한국어교사는 다른 학습자보다 친근하다고 생각되어 개인적 인 질문을 했는데, 질문에 단호히 거절하는 학습자를 보고 많 이 민망했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. 미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, 출신, 직 업, 수입, 가족관계 등은 극히 개 인적인 사생활이므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단호한 미국인의 모습에 많이 놀랐 다고 한다.

한국에서는 서로 알거나 친분관계가 있으면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사적으로 처리하는 예가 종종 있다. 한 한국 대학 생은 과제 기한을 넘겨서 제출할 때, 친분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가 없어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한국 교수는 마감일을 넘긴 괴제여도 받아주는 반면, 미국인 교수는 시-적으로 친밀해 도 공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고 한 다. 반갑게 이이기를 나누고 식시를 할 수 있는 시-이여도 약속 된 과제제출의 기한을 연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한디-. 힌국 대학생은 평상시의 친밀한 관계를 확대 해석하여 약속된 과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가 공적으로 처리하는 미국인 교수 의 냉정한 모습에 정이 떨어졌다고 한다.

한국의 여대생들은 조금 친해지면 고민, 가족, 남자친구 등 자신의 '생활에 대해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디-. 학 교수업에서 조별발표를 위해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3〜4시간 같이 발표준비를 함께 하면서 대회를 하다보면 친해지게 되어 서로의 이성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. 한 힉생이 조별발표를 함께하는 미국인 친구의 휴대폰에 남자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어 남자친구 냐고 질문을 하자 휴대폰의 배경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바꾸며 정색을 해서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. 힌국 대학생은 이 경험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영어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생활과 관련 된 질문을 받으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. 이 사례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친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과 자신의 사생활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문화권의 사람이 만났을 때 사생활 공유에 대한 생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 통 갈등의 예이다.

**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직장문화**

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직장의 조직문화, 즉 단체 모임 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에서 힌국어를 배우는 캐나다인은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일하 는데 일과가 모두 끝난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서 회식에는 매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. 그 이유는 자신의 업무를 마친 퇴근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 고, 회식자리에 가면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 이라고 히였다. 이 캐나다사람이 직원회식에 자주 빠지자 그 동안 외국인이어서 그를 이해하려 했던 과장이 결국 그를 불러 내어 상사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는 참석하라는 충고를 하였 고, 이 외국인은 업무가 끝났는데 상사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회식에 무조건 참여해야 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고 한다. 한국인은 직장생활 속에서 같은 부서원들과 퇴근 후의 회식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단합하는 기회로 삼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 빈번한 회식문화의 경험이 없는 외국인은 이처럼 업무 후에 이루어지는 회식을 개인적 시간을 침해하는 것, 같 은 술잔을 돌리며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셔야 하는 부담스런 모임으로 생각하여 한국 직장에서의 회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 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.

**폐 끼치지 않는 일본인**

한 한국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홈스테이의 인연으로 친하게 지내는 일본친구가 있는데 이 일본 친구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인 특유의 가치관인 ‘메이와쿠（述惑）’이며 이러 한 가치관 탓으로 일본친구에게 다가갈 수 없는 벽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. 몇 년 이상 교제해온 터라 식사를 같이 하면 한쪽이 상대방을 밥값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이 일본친구는 늘 각자내기（더치페이）를 하였고으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면서 수차례나 거듭해서 미안하다고 하여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분 위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한디-. 게다가 일본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숙소를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숙소（경제적으 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 었음）를 찾아서 예약을 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의 속미음을 정말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.

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‘메이와쿠 가케 루나’（他人仁 述惑추 桂 石 구: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）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다고 한다. 한 우스갯소리로 물 에 빠져 죽을 뻔한 일본인을 구해줬더니 “살려줘서 고맙다”는 말보다 “폐를 끼쳐 미안하다”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.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행동은 상대를 배려하는 좋은 예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로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분이 형성된 친구 사이에 필요 이상의 거리는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.

**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**

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, 현지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음식이다.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40명（외국인 교수 / 교환학생 / 한국어교육기관 학습자: 중국 / 일본 / 몽골 / 필리핀 / 핀란드 / 러시아 / 독일 / 프랑스 / 미국 / 캐나다 / 뉴질랜드）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들 의 인식을 조사하였디-.

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한국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‘아주 많다. 냄새 때문에 힌국음식이 싫다’가 19%, ‘가끔 있다. 이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’가 28%로 외국인의 47%가 냄새 탓으로 한국음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.

음식을 개인 그릇에 덜어서 먹지 않고 함께 먹는 한국인의 식사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‘깨끗하지 않은 식사방법이다. 비위생적이다’가 39%, ‘한국인은 음식을 함께 먹는지 몰랐다’가 7%, ‘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’가 54%로 나타났다. 한국식당에서 특이 식습관（채식주의자 / 알레르기 보유）으 로 주문할 때 불편함이 있었다.

**출처**

김정은. (2011). 한국인의 문화 간 의사소통. 서울 :: 한국문화사.